

코스피	2764.73	코스닥	841.52
	(-19.53)		(-11.15)
금리	3.194	환율	1389.00
	(+0.018)		(+0.70)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스1

## ‘한 번 불 나면 연쇄 반응’ 리튬전지 화재진화 난항

###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시신 16구 수습, 실종자도 많아 화재시 물 진압 안돼 위험성 부각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완벽한 진화 대책이 없어서다. <관련기사 2·6면>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 내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시신 16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에 대한 내부 수색을 시작한 이후 소소한 상태의 시신 16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구조대 본격 수색을 통해 현재까지 15구 시신을 수습했다”며 “나머지 실종자 6명에 대해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실종자는 23명으로 알려졌으나 중복 사항 등이 있어 최종 실종자는 21명으로 추정됐다.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사망한 작업자는 16명이다.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2층에는 3만

5000개의 배터리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보통 열 폭주로 일어난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에서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때 배터리 안에서 벤젠과 불산 등 유독가스가 나오고, 특히 열폭주 시가 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해 화재를 더 키울 수 있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케이스에 밀봉된 상태로 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면 물로 냉각할 수 있다. 반면 리튬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물과 반응해 화재가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마른 모래와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을 사용해 차단하는 방법을 쓴다. 일반 화재에 쓰는 소화기처럼 쓸 수 있는 소화약제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다. 화재 시 물로 진압할 수 없다. 한 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번지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화재 상황에 대한 메뉴얼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반도체 등 13대 주력품 호조세 수출 6000억 달러 역대급 예상

### 무협 ‘2024수출입평가·전망’ 올해 수출 전년비 9% 증가 예상 무역수지 410억 달러 흑자 전망 IT기기·자동차·선박 선전 영향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90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를 비롯한 IT기기 호조세에 자동차와 선박 수출 성장세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1.0% 증가한 649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1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런 수출 전망치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전망한 7.5%보다 1.6%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실제 이를 달성할 경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

보고서는 올해 수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IT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선전을 꼽았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IT제품 수요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할 것으로 봤다.

컴퓨터(53.0%), 디스플레이(10.3%), 무선통신기기(8.0%) 등도 글로벌 IT 경기의 빠른 회복세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4년 IT 기기 매출증가율은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70.5%, SSD는 87.1%, 스마트폰은 7.2%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캐즘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HEV)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3.7%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14.3%)도 하반기 중 유럽, 아시아 등지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예상돼 우호적인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고급

리 기조 완화, 인플레이션 약화 등으로 점차 소비가 확대되며 우리 13대 주력 품목 수출이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철강은 상반기 수출단가 하락과 수요 부진 등 불안한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더라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0.8%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5월까지 우리 수출은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상반기 흐름을 유지한다면 올해 최대 수출 실저는 물론, 양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최대치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다만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환율 불안,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의 관세장벽 강화, 해상운임 상승 등은 하반기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며 “무역협회는 수출 회복 기조를 이어가도록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무역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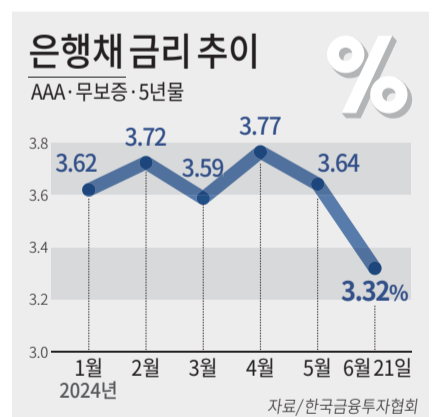
## 금리 내리고 규제 코앞... 가계대출 ‘들쭉’

### 주담대 금리하단 0.54%p 하락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대출 수요 늘어 집값상승 우려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3.5%)는 여전히 높지만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여전히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상승 불씨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5.57% 수준이다. 지난 5월초 금리(연 3.48~5.87%)와 비교하면 하단기준 0.54%포인트(p)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하단기준 2.94%로 2%대를 기록했고, 국민은행 3.09%, 하나은행 3.17%, 우리



은행 3.19%, 농협은행이 3.37%를 기록했다.

고정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기준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금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3.32%로 연 저점을 기록했다. 5월초 금리 3.74%보다 0.42%p 떨어졌다.

다만 고정형 금리가 2%대까지 떨어

지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오는 7월부터 예고되면서 그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매매 수요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이전에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6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도 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 유인촌 등 문체위 불참에 “명백한 직무유기... 입법권 침해”
- ▲ 민주 법사위 “윤석열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내달 통화기록 말소돼” /사진 뉴스1

- ▲ 외교부 “北 확산금융 다각화 대응 위해 동남아 협력 필수”
- ▲ 신원식, 군 잇따른 사망사고에 “부대운영 개선 등 종합대책 수립”



- ▲ 나경원 “韓·元, 대표를 대권 디딤돌로 생각... 둘 다 걱정” /사진 뉴스1
-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해야...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도”